

# 부산시, 올해 수소차 200대 보급

2022년까지 1000대·충전소 10개소  
보조금 3450만원·세계감면 660만원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

부산시가 친환경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와 충전소 10개소를 구축한다.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원이며, 최대 660만원의 세계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최근 정부의 수소차 보급계획이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산시도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해 확대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선제 조치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제작사인 현대차(주)와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 ◆생활 속 수소차 보급 확대

시는 도심 공기질 개선과 수소차에 대한 시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수소버스, 청춘드림카, 카셰어링 등 생활 속 수소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환경부 주관 수소버스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중 수소버스 5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게 된다.

이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며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중 20%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수소차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나서 취업 청년 차량 임차비 지원사업인 청춘드림

카사업과 지역 카셰어링업체에도 제작사와 협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게 된다.

### ◆수소하우스 3월 중 유치 계획

수소차 홍보전시체험장인 수소하우스를 올해 3월 중 부산시에 유치해 수소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수소하우스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소하우스 AR 전문안내원 투어, 차세대 수소차 배소 및 절개차 전시, 수소차로 구동되는 집과 미래수소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나아가 부·울·경 상생을 위한 수소산업분야 공동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동반권 협력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는 또 수소경제사회를 대비해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소산업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선제 대응을 통해 정부사업 선점 및 민간투자사업 유치, 특화사업 발굴 등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 인천의 경제비전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일자리 55만개

###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

4대분야 80개 실천과제 공식  
지속가능·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개(지속가능한 일자리 5만개)를 목표로 하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시는 로드맵의 비전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전문가 및 시민의 견을 수렴해 4대 분야 14개 추진전략 8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고 3일 밝혔다.

로드맵의 추진방향은 ‘일자리 시스템 혁신’을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이다. 시는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해 산업별, 정책 대상별 시민협치를 통해 일자리정책을 진행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체감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천형 신성장산업과 일자리 연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인천 주력산업 및 입지적 장점(공항, 항만, 경제청, GCF) 등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바이오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며, 인천공항공제권 구축, 마이스 및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인프라 구축과 함께 입주공간과 경영기술 등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스마트공장 보급



인천시청

확대 등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지원과 자립환경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도모한다.

정책대상별·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여성·어르신·신중년 등의 일자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생활SOC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고용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시설을 확대해 일자리창출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별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사업 도입,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과 소상공인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인천을 만드는 일자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서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의 기능을 통합해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했다.

또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 일자리대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TF 추진단 구성·운영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 담양 죽녹원, 韓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담양 죽녹원이 ‘한국관광 100선(2019~2020)’에 3회 연속 이름을 올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높은 인기와 명성을 재차 증명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5만9000여 명이 찾은 담양 죽녹원은 마음까지 맑아지는 청량감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대숲 산책로와 함께 시가문화촌, 한옥숙박, 죽로차 다도체험 및 시서화 풍류체험, 장인각, 봉황루 전망대, 추월당 한옥카페, 이이남아트센터 등이 조성돼 쉼터 기능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담양 죽녹원. /담양군청

변모해왔다.

또한, 죽녹원은 3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빛나는 ‘담양대나무축제’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하며 ‘2017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된 ‘담양음식테마거리’와 조화를 이뤄 남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서 방문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 관광자원 개발에 1181억... 관광지 조성 팔건어

전남 ‘방문객 6000만 시대’ 도모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135개 사업

전라남도는 올 한 해 국내외 방문객 6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국비 662억 원을 포함한 총 1181억 원을 들여 최근의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지 개발과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광 안내체계 구축,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 135개 사업이다.

분야별로 관광지는 구례 지리산 온천관광지개발 등 4개 지구에 29억 원을 들여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여수 조?명(朝明) 연합수군 테마관광지 개발 22억 원,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관광지원화 28억



전남도청 전경

원, 정유재란 전적지 평화공원 조성 18억 원 등 73개 사업에 864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의 뛰어난 친환경 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의 경우 함평 용천사원 관광개발 33억 원,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 17억 원, 구례 간문천 수달생태탐방로 조성 15억 원, 장성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13억 원 등 18개 사업에 154억 원을 들여 사업이 추진된다.

2017년 완공돼 좋은 평가를 받아 탐방객이 크게 늘고 있는 ‘남도 명품길’ 조성 사업을 확대해 담양호 산막이길 등 3개소

29억 원, 목포 고하도 해식에 해안길 조성 26억 원 등 14개 걷기 여행길 조성 사업에 107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21개 사업에 8억 9천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개 사업에 14억 원,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구축을 위해 해양레저휴양시설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에는 12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빌라 등 국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진도 대평리조트관광단지는 1단계로 6월에 콘도와 호텔 등 576실을 준공,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 해상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는 4월 개통, 해남 울돌목 해상케이블카(진도타워~해남 우수영관광지)와 여수 웰린지파크 관광단지는 연초에 착공하는 등 서남해안권의 체험·체류형 관광자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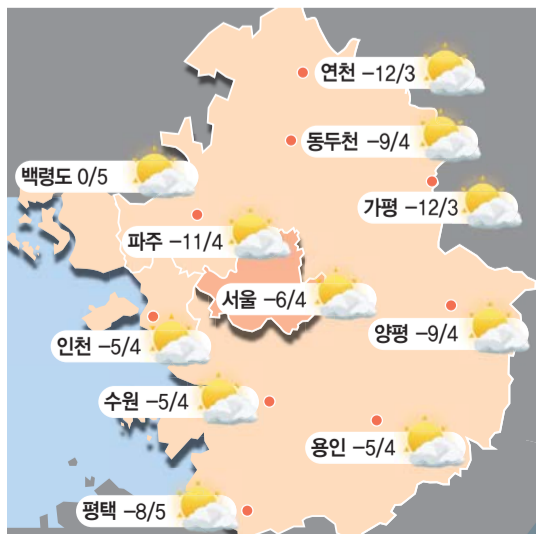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6

1월 4일 (금)  
음력 : 11월 29일

수도권 날씨  
-6~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전남 산불 예방·숲 조성 등 산림관리 우수

전라남도는 3일 산림청 주관 ‘2018년도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 상패와 포상금 1400만 원을 받았다.

산림 분야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행한 지

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10개 산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중앙부처와 평가위원이 합동 검증하고 현지실사와 고객 체감도 등에 대해 실적이 탁월한 기관을 선정했다.

전라남도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

을 통한 경관숲과 소독숲 조성 등 다양한 숲 조성과 숲가꾸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노력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과 수종 개선 등을 통한 목재 생산 및 국산목재 이용을 통한 목재산업화 노력 등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해온 것도 한몫 했다. /전남=봉태영 기자